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야들야들 익어가는 바다에

잔잔한 바다 위로 오늘도 태양은 떠오른다. 모처럼, 부산한 도시를 떠나 한가한 펜션을 찾았다. 한 달 전 예약한 펜션이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준비했다. 들뜬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고 '어디서나 바다가 보이는 멋진 휴식 공간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였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두기는 기본이라는 자세로 출발을 결정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약한 펜션이 섬의 가장 끄트머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운전하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가도 가도 좁고 가느다란 시골길이다. 산도 나오고 강도 있다. 자치고 짜증이 풀려올 무렵, 드디어 눈앞에 00펜션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과 아내도 더위와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한 답이 없는 상태다. '휴!' 한숨을 몰아쉬며, 어찌어찌 도착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눈에 들어온 펜션은 많이 낡아 보였다. 방도 좁다. 무뎠던 줄 알고 계약했던 내 생각과는 달리 원룸이다. 시설도 조금은 기대 이하였다. 전반적으로 실망이다. 다만,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정말 한 쪽의 그림자이다.

가느다란 벤치에 앉아 바리보는 석양은 한 편의 드라마 되어 함께 한 얘기를 토닥이는 아들과



박여범

영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얼마의 다양한 또 다른 드라마처럼 아스라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넘실대는 조각배는 두둥실 떠가고 지지직 맞닿는 소리에 알 수 없는 폴벌레 콜라보는 바다가 그리운 누군가에게 고즈넉하게 넘실넘실 출렁대며 아들이들 익어가는 바비큐 가득 바다가 넘실댄다

박여범, '아들이들 익어가는 바다에' 전문-

이 아름다운 그림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 바로 '모기'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현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배경으로 자리를 잡은 벤치는 영화의 한 장면이다. 그렇지만, 알 수 없는 벌레의 물림에 온몸이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괴성을 질러댔다. 늘 전원주택의 낭만을 그리던 도시 태생의 가족이다. 그러므로 만만하지 않은 어촌의 펜션에서 벌레와의 전쟁에 방으로 뺀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바다풍, 산책풍은 모두 1개월 넘게 예약이 만원이

었다.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별장, 카페 등이 이 바다를 통해 실현되는 순간이다. 바비큐를 즐기는 저녁 식사, 숯불에 불을 댕기고, 고기를 올린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서울에서 달래온 딸이 합류하니 모기는 안중에도 없다. 사장님이 준비한 낫익은 모기향만이 홀로 모기와 전쟁 중이다.

"아빠, 아, 뭔가 큰 것이 물었어? 낫익대가 짝 휘어졌어? 큰 놀인가 봐요?"

"어디, 아니야 아들, 이거 바위에 걸린 것 같은데? 잘못하면 낫바늘 다 상하진 조심조심 풀어보자" "....."

"아빠, 아빠가 뽀얏어요, 바위에 걸렸는데, 줄을 풀으니 다행히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디, 지렁이는 다 먹어 버렸어요."

"다시 끼면 되지? 뭘 걱정이야, 정말 재미있어? 이틀아, 우리 자주 낚시 다니자."

"네, 아빠, 이번에 잘 따르던 것 같아요? 우리 작은 것이라도 잡아봐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빠도 재미있다. 아, 이 맛에 낚시

하는구나, 진짜 낚시해볼걸....."

바다와 함께 한눈에 담기는 아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늘, 무뎠던 대학교 3학년 '올 아들에게 이런 면도 있구나?' 늘 알게 된 시간이다. 바로 올 아들을 때료시킨 것은 '바다낚시'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열중하는 자세는 이번이 처음일 듯하다. 지나가는 말로 "아빠, 언제 한 번 바다 낚시해 봐요~"가 생각나서 휴게소에 들러 바다 낚시대와 지렁이 등을 준비해 왔다.

처음에는 낚시바늘을 어떻게 메는 것인지도 몰라 우왕좌왕했다. 20분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다가 겨우 바닷가로 나갔다. 그러나 어떻게 낚시대를 던져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강태공에게 물어 물어 어찌어찌 낚시를 평생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입질하는 손맛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낚시대를 통해 전해오는 짜릿함은 장난이 아니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상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항상 희망이 있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름답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어느 곳에서나 바다가 보이던 그 펜션처럼, 눈을 돌리면 서로의 밝은 웃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 얼마나 따뜻한가?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루카셴코 퇴진 요구 행진하는 벨라루스 노동자들



26일(현지시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조디노에 있는 벨라루스 자동차 공장(Belaz) 인근에서 야당 지지자들과 파업 노동자들이 손에 망치를 든 노동자상을 지나 행진하고 있다. 벨라루스에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독자제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른의 모범부터

해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통사고에 노심초사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사고 중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사고인데,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근본 원인은 단순하다. 무단횡단 하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모든 능력이 떨어진다.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른보다 모방능력은 월등히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무단횡단이 바로 내 자녀, 이웃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조장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뛰지 말고 걸어서 보도를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빨간불일 때는 안 뛰지만 파란불로 바뀌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뺏다 뛰게 된다. 안전한 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어른들의 모범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확진자 발생을 보면 확산세가 너무나 심각하다. 지난 20일에 324명을 기록하더니 다음날에는 332명을 기록했다. 22일에는 307명을 기록하더니 23일과 24일에는 약간 줄어들어 각각 266명 280명을 기록했다. 그러다가 25일에는 320명으로 늘었고 26일에는 441명으로 대폭 불어났다. 정말이지 이같은 확산세는 보통 사태가 아니다. 이렇다 하는 우리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가 싶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코로나 감염 예방은 거리두기 실천이 답이다. 다들 경계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겠다. 방역 당국이 말하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당부이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된 이들은 밀접 접촉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가깝게 마주 보며 잠시 대화 나누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도권의 일부 현장을 보면 너무 한심스럽다. 실내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자라 노래하며 춤추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북이 청정 환경을 유지해왔는데 확진자가 늘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누적 확진자 수가 82명이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하룻밤 사이에 84명으로 늘었다. 정말이지 코로나가 계속 두려움의 대상이다.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중에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전국 80%의 환자 발생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쪽 여행을 삼가해야겠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애를 쓰고 있건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감염이 환자 비율이 20%나 되고 있으니 말이다.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일부 교회가 많았다. 방역 당국이 비대면 예배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도통 들어먹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겠다. 순종적이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교직자들이 정부 당국에 예를 먹이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도내의 모든 교회들은 다른 지역 교회의 못된 작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종교계가 코로나 발병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정령 통탈할 일이 아닌가.

노인 일자리에도 마음을 두고 있어야

전북도는 생각에 생각을 더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많은 것들 중 우선 순위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일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북 지역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 아니다. 도내 홍수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는 일도 보통 시급한 일이 아니다. 특 별재난지역이 되었다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로부터 빨리 지원을 받는 일이다. 그리고 또 있다. 일자리 창출이 그것이다.

그래서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저번에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이 어찌됐든 지금 공군이다. "인구법을 쌓아 전북 소멸을 막자"고 했는데 말이다. 예전에 서울시가 65세 인구 15% 초과를 걱정했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서울 경기 쪽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진정이 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그쪽으로 떠나는 현상이 다시 이어질 지도 모른다.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지난 수년간 제일 컸던 때 뛰지 말고 걸어서 보도를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빨간불일 때는 안 뛰지만 파란불로 바뀌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뺏다 뛰게 된다. 안전한 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어른들의 모범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한 보행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우리 지역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16년에 18.12%이던 것이 2017년에는 18.72%로 늘었다. 그리고 2018년에 19.27%이던 것이 2019년부터는 20%를 넘게 기록하고 있다. 도내 전체 인구 182만 3천9백 명 중에서 36만 5천 명이 노인들을 위해 작은 일자리라도 많이 마련해야겠다. 노인 증가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큰데 노인 친화형 일자리 창출에도 마음을 써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